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 25호 【루계 제25899호】 주체107(2018)년 1월 25일 (목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룡명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46년 6월 우리 나라의 첫 제약공업기지로 창설된 평양제약공장에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리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1982년 5월 평양제약공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을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현대적인 의약품포장재생산공정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 이날 나라의 중대사를 토의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도 뒤로 미루시고 공장에 찾아오시였다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평생 마음쓰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라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초소를 지켜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약품생산에서 창조적열정과 헌신적노력을 다 바침으로써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포장재직장, 신약직장, 고려약직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신약과 고려약들을 제품전본실에 전시해놓았는데 가지수도 많고 약효도 높다고 하시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과 품질관리를 엄격히 진행하여 의약품의 질을 담보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제약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의 요구에 맞는 종합생산체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잘 구축해놓았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원료입고, 제분, 체치기, 혼합, 건조, 타정, 성형, 당의, 피막, 포장 등 신약직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개건을 진행한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하여 생산량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였다고 하시면서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능력이 큰 공기조화설비도 갖추어놓고 생산현장과 복도를 유리벽으로 격폐시키였는데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고려약직장의 추출, 농축, 조합, 숙성, 포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도 기술개건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파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체로 만든 약초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제분기를 비롯한 설비들이 좋다고 하시였다.

신약과 고려약들의 제품검사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종합분석실도 잘 꾸려놓았는데 약품분석을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현대적인 분석설비들을 더 갖추어주면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도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운영사업을 정상화하여 종업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공장안팎이 제약공장답게 깨끗하고 정갈하며 환하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공장구내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제약공장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 예방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련관된 부문들에서 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기술수단들을 제때에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항시적으로 필요한 대중약품, 상비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약품가지수를 보다 늘이고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제약공장은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약품을 생산하는 곳이므로 최상의 위생조건과 환경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약품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생산과 검정, 보관, 취급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질좋고 효능이 높은 새로운 의약품을 연구개발하여 치료예방사업에 널리 리용할수 있게 하자면 세계적인 제약공업발전추세를 잘 알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포장용기들의 위생성, 문화성, 실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과 함께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도록 상표도안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앞으로 공장종업원들을 위한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들도 잘 꾸려주어 그들의 생산열의를 부쩍 높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인민적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물질적기초이며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의 하나인 의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자면 평양제약공장을 더욱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평양제약공장의 개건현대화는 단순히 의약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이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 체부로 느끼도록 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투쟁, 보람찬 투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평양제약공장을 우리 나라 제약공업부문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꾸리고 이곳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의 제약공장들을 다 현대적으로 개건하자는것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제약공업부문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평양제약공장 현대화와 흥남제약공장현대화를 대담하게 밀고나가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온정깊은 조치들을 직접 취해주시였다.

우리의 과학기술력량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하기에 평양제약공장을 능히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제약공장으로 전변시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로동계급은 개건현대화투쟁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걸사관철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공화국창건 일흔돐전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제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제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고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더 높은 현대화목표를 제시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위한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해 내 외 의 전 체 조 선 민 족 에 게 보 내 는
호 소 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새해의 려명이 밝아오는 첫아침 절세의 위인께서 펼쳐주신 조국통일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통일대진군이 시작되였다.

열화같은 민족애와 투철한 자주의지가 차넘치고 천리혜안의 예지가 빛발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나라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지펴진 새로운 희망의 불길이며 대결과 적대의 동토대우에 울려퍼진 화해와 단합의 력사적선언이다.

걷잡을수 없이 몰려드는 핵전쟁의 화염을 두고 온 세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던 조선반도의 그토록 험악한 정세가 새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완화되고 날로 악화일로를 치닫아온 북남관계가 단 며칠사이에 그 면모를 달리하고있는 오늘의 놀라운 현실은 절세위인께서 신년사에서 그어주신 조국통일의 리정표가 얼마나 정확하고 선견지명한것인가를 투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단합되여 일떠서면 당할자 없다는 필승의 신심드높이 새해 정초에 내딛은 좋은 첫걸음을 자주통일위업수행의 획기적전진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올해는 우리 인민이 삼의 요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경사롭게 맞이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다.

북과 남은 한피줄을 나눈 동족으로서 민족적대사들을 다같이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내외에 힘있게 떨쳐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절세의 위인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정사로운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 드높은 의지를 안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민족의 존엄과 강국의 지위는 락월한 령도자를 모시여 만방에 떨쳐지고 빛나게 된다.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시며 불세출의 선군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최상최대의 행운이며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이다.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절세위인의 자주통일사상과 로선을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마음으로 적극 지지하고 실천해나가자!

하루속히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것이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떠선 우리 겨레모두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쟁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반목질시하고 대결하는것은 더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북남관계를 시급히 개선하고 통일되고 강성번영할 민족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자!

온 삼천리강토를 자주통일의 열풍으로 들끓게 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궤도를 따라 북남관계를 과감히 전진시켜나가자!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이제 더는 남의 눈치를 볼것도 없고 외부에 들고다니며 누구의 도움을 청탁할 필요도 없다.

슬기로운 조선민족다운 높은 자존심과 담대한 배짱으로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자!

우리 민족이 들어쥔 핵보검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침략과 핵전쟁도발책동을 제압하고 전체 조선민족의 운명과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고있으며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주체조선의 핵보검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며 외세에 빌붙어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들아치는것처럼 가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민족의 핵, 정의의 핵보검을 악의에 차서 걸고들며 그것을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로 대도하려는 온갖 궤변과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2.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은 북남관계개선의 절정적걸림돌이며 평화적통일을 가로막는 근본장애이다.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그칠새없는 첨예한 군사적긴장속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전도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이 지나온 력사가 실증해준 교훈이다.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핵재난을 들씌우려는 외세의 전쟁도발책동에 단호히 맞서 싸울대신 오히려 그에 편승하여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우매하고 무지한 동족상쟁행위는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떨쳐일어나 정세를 격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온갖 적대행위와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자!

겨레의 운명과 민족의 전도를 담보하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누가 지켜주는것이 아니며 그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민족의 안전과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모두가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고 드놀지 않는 성벽이 되자!

북남대화의 문이 열리고 민족의 중대사들이 진지하게 론의되고있는 오늘 미국의 흡물스러운 핵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이 남조선에 버티고있을 아무런 리유도 없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격화시키고 이를 구실로 조선반도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동북아시아에서 허물어져가는 패권적지위를 지탱해보려는것이 바로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이 땅에 위험한 화염을 피우며 제앙을 몰아오는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반전평화공동투쟁에 궐기하자!

내외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가자!

전민족적인 반미성전으로 전쟁의 화근을 밀루리째 들어내고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상이 보란듯이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3.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고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한사코 반대하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남조선의 보수역적패당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된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남조선의 반통일역적무리들이 북남관계에 끼친 파국적후과를 시급히 가시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힘있게 열어나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강렬한 열망이며 일치한 의지이다.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온 겨레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자!

지금 북과 남의 각계각층이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늘길, 바다길, 땅길로 자유롭게 오가며 혈육의 정을 잇고 화해단합의 대세를 적극 추동해나가자!

올해는 력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개최된지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의 정신을 고수하고 이어나가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전민족적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해내외의 각 정당별, 계층별, 부문별접촉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교류를 적극화하여 통일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자!

단결은 민족의 힘이며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지역,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키는것은 민족적화해를 실현하고 통일분위기를 높여나가기 위한 선결적요구이다.

온 겨레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호름을 지향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하고 적대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가자!

우리는 올해에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북남선언발표기념일들과 조국해방 73돐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만방에 떨쳐나갈것이다.

4. 민족자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지금 북과 남의 각계각층이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늘길, 바다길, 땅길로 자유롭게 오가며 혈육의 정을 잇고 화해단합의 대세를 적극 추동해나가자!

북과 남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지역,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키는것은 민족적화해를 실현하고 통일분위기를 높여나가기 위한 선결적요구이다.

온 겨레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호름을 지향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하고 적대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가자!

우리는 올해에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북남선언발표기념일들과 조국해방 73돐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만방에 떨쳐나갈것이다.

4. 민족자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지금 북과 남사이에는 우리의 대범하고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접촉과 대화들이 진행되고 그 합의리행을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오늘의 의미있는 출발을 북남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제2의 6.15시대에로 이어가야 한다는것이 시대와 민족사의 엄숙한 명령이다.

우리 민족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춤하거나 멈춤없이 오늘의 기세대로 계속 전진해나가자면 민족자주의 리념에 충실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이 두철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리념,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외면하고 외세에 아부굴종하면 초래될것은 북남관계파탄과 전쟁밖에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자!

외세에 추종하고 민족의 리익을 남에게 내맡기는 추악한 친미사대와 외세굴종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견지하자!

민족자주의 기치를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자!

북남관계에 개선의 기류가 흐르는 지금 내외반통일세력들은 불안과 공포에 질려 간섭과 방해의 흠을 노리며 그 흐름을 되돌려보려고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철저히 짓부시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

온 겨레가 손을 잡고 힘을 모아 부강번영할 통일된 삼천리조국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는 자주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추동해나가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여!

위대한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이 우리 겨레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승리의 기치가 전두에 펄펄 휘날리고있다.

자주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제아무리 악랄해도 내 나라, 내 민족을 뜨겁게 품어안고 통일과 정확번영의 대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으며 위대한 향도따라 나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막을자 그 어디도 없다.

모두가 광명한 민족의 래일을 굳게 믿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전환, 대사변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주체107(2018)년 1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진행,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가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련합회의에는 양형섭동지, 김영철동지, 로두철동지와 우당위원장, 사회단체 일군들,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일군들을 비롯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의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의 보고에 이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대동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민족의 운명과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불같은 사랑, 민족의 최대수원을 기어이 풀어나가시려는 숭고한 사명감과 확고부동한 의지가 백박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인 올해에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에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재앙을 몰아오게 될 미국과의 전쟁연습을 영원히 중단하고 남조선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의 국가핵무력완성으로 달라진 민족의 위상에 맞게 민족제일, 민족자주,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려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위해 민족성원모두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을 활발히 벌려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통일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청년학생들이 남조선과 해외의 청년학생단체들과 긴밀히 련대하여 자주통일운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며 통일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겨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민족자주의 리념에 따라 곧바로 나아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 영 남 동 지 가
제30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 수뇌자회의에 축전을 보내였다

아디스 아바바

제 3 0 차 아 프 리 카 동 맹 국 가 및 정 부 수 뇌 자 회 의 앞

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속에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제30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열리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회의에 참가한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대표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과 아프리카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항구적로정에 관한 문제를 기본의제로 하고 대륙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게 되는 이번 수뇌자회의가 지역나라 인민들의 념원대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아프리카동맹과 그 성원국들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을 다시금 확언하면서 이번 회의가 대륙의 통합과 번영을 앞당기고 사회경제적발전을 추동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1월 24일 평 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평양교원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교원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궐기모임이 24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대학초급당위원장 로금철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양교원대학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본보기대학으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고 대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일군들, 교원, 학생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사랑의 선물까지 가슴가득 안겨주시는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현대화정형과 교수교양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금방석을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교원대학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교육사업에 불타는 애국적열정과 재꽂힌 량심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대학의 교직원들을 교육사업의 담당자, 새 세기 교육혁명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실천적성과로 보답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언혁소개실, 교육과학전시관을 통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교직원, 학생들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교수 및 과학연구사업, 학과학습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교육사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교원진영을 강화하며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환경과 조건을 더욱 훌륭히 꾸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첨단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구비품들을 애호관리하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쟁쟁한 억군들을 키우는 참된 교원력량가로 준비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앞장에서 학령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공세의 불길드높이 힘차게 전진

청천강－평남관개물길공사장에서

굴함없는 공격전으로 열어가는 돌파구

황해남도려단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당이 제시한 이 전투적구호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들고 황해남도려단 일군들과 대원들은 산악같이 떨쳐나 련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과업관철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말자!

일군들은 이런 각오를 안고 굴함없는 공격전으로 맡은 물길굴진설에서 앞장서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려단은 물길굴진설에서 제일 큰 몫을 맡았다. 굴진실길이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 작업경만 하여도 10여개나 되였다. 전기와 자재가 긴장한것을 비롯하여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닌 조건에서 종전의 력량과 수단으로 이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일군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난관에 포로되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 우리에게 자력갱생의 전통이 있는 한 이쯤한 난관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심을 든든히 가진 이들은 자체로 진설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방도를 찾았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그중에서 김석철려단장이 내놓은 안에 초점이 집중되였다. 그것은 공사량이 늘어난것만큼 설비리용률을 높여 진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치자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설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들메를 조이고 나섰다. 어디서나 대건설전투가 벌어지고있는 환경에서 필요한 설비를 마련한다는것이 간단치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주저하지 않았다.

굴함없는 공격전으로 만난을 뚫고나갈 때 반드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황해남도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설비해결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제힘으로 일떠서나갈 때 막혔던 길도 열리는 법이다.

뼈를 깎아서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야 한다는 강의한 정신으로 노력한 보람이 있어 권양기와 압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설비들을 해결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음을 놓지 않았다.

늘어난 작업경들에 설비들을 설치할 방도가 또 없겠는가.

려단장은 이 문제를 놓고 안영구려단정치부장, 리강선려단참모장과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그 과정에 찾은 결론은 하나였다. 자강력을 더 힘있게 발휘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일군들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설비들에 주의를 돌리였다. 그런것들을 찾아 수리하면 부족되는 설비를 보충할수 있었다. 물론 이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고장난 압축기의 부속품만 해결하자고 해도 많은 품을 들여야 하였다. 때문에 일부 단위에서 되살리지 못한 설비도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다시 살려쓰기 위해 이들은 천리길도 서슴지 않고 달려가 필요한 부속품을 해결하였다. 이렇게 간고분투하여 되살린 설비들을 매 작업경들에 설치하였다.

일군들이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이는 사업에 힘을 넣은 사실도 주목된다.

어떤 공법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공사의 질과 속도를 높이느냐 마느냐가 크게 좌우된다.

문제를 이렇게 보고 일군들은 이 사업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나갔다.

려단의 하루전투총화를 지휘부에서가 아니라 대대들의 작업경들을 돌면서 하기로 한것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 총화모임은 보여주기사업으로 되여 대대일군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앞선 단위의 하나인 신천군대대 작업경에서의 총화모임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었다. 대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맡은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새 전투목표를 세웠다.

그 수행을 위해 실정에 맞게 착암속도를 높일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고 발파후 굴착기를 앞세우면서 버럭처리를 따라세워 립체전을 벌리는 등 대담한 공법들을 받아들이고있었다. 그리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는 이 대대의 전투성과가 모임참가자들에게 준 영향은 컸다.

우리는 왜 이 대대처럼 못하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이런 가책을 느끼면서 더욱 분발해나섰다. 대대들사이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혁신적인 작업방법들이 적극 도입되였다. 경바닥에 버럭을 일정한 높이로 쌓고 그우에서 굴상부확장과 피복공사를 하는 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목재를 절약하는 등 실리있는 공법으로 공사의 질과 속도를 높여나갔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굴함없이 공격해나갈 때 혁신적인 공법도 기계설비도 나오고 난관도 길을 비켜선다.

이런 신념을 안고 일군들은 창조적인 일본새를 더욱 높이 발휘하고있다.

혁신적인 작전과 일본새로

평안북도려단에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분발해나선 평안북도려단 일군들은 기성관례와 공법들을 대담하게 깨버리면서 려단의 돌격로를 앞장에서 열어제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가지고 일해나가야 합니다.》

려단앞에는 1.5㎞의 물길굴을 건설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공사량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다. 이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이 결코 헐한 일은 아니였다. 하지만 대원들은 결사관철의 함성드높이 큰바로의 정신으로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완강하게 전진하였다.

그러던중 뜻하지 않은 정황에 부닥치게 되였다. 암질이 무른 구간과 맞다들었던것이다. 여기서는 붕락현상이 계속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기 어려웠다. 버럭이 너무 쌓여 이것만 처리하자고 해도 로력과 시간이 한정없이 요구되였다. 일군들은 가슴이 타들었다.

그때 허명철려단정치부장은 생각이 깊었다.

난관이 백가지면 그 해결방도도 백가지로 찾을줄 알아야 한다. 당이 바라는 그런 솜씨있는 지휘관이 되자면 기성관념을 대담하게 버려야 한다.

최성남려단장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마음을 하나로 합친 이들은 갱도식으로 굴뚫기를 하는 도식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난관이 조성된 구간에 명굴을 형성할 혁신적인 방도를 찾았다.

그리하여 굴착기로 땅을 파헤치고 명굴을 형성하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이 전투로 하여 암질이 무른 수십m구간에서 몇달동안에 해야 할 물길굴진설을 한달만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난관앞에 뒤걸음칠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맞받아나갈 때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군들이 착안한 이동식압축기리용에 의한 굴뚫기방법도 실리적이다.

려단에는 몇대의 고정식압축기가 있다. 이것으로 가동시킬수 있는 착암기의 대수는 제한되여있다. 그런데 물길굴진설길이가 종전보다 늘어난 조건에서 착암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였다.

일군들이 아무리 따져보아도 이 압축기들만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 굴을 뚫고나갈수록 압축공기를 보장하는 배관을 계속 늘이는것도 문제였다. 쇠로 만든 배관이 부족하였던것이다.

일군들은 지혜를 합쳐 방도를 찾았다. 그 과정에 모두의 의견이 이동식압축기를 리용하자는데로 합쳐졌다.

이 압축기는 고정식에 비해 적은 원가를 들여 해결할수 있었다. 이동식압축기는 임의의 장소에서 리용할뿐만아니라 착암기와 련결된 고무호스를 통해 공기를 보장하므로 배관을 따로 놓일 필요가 없었다. 압축기에 발동기를 설치하면 전기가 긴장해도 착암기를 가동시킬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동식압축기해결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비닐관을 배관으로 리용할 안도 착상하였다. 이동식과 고정식압축기들을 다 리용해야 하는것만큼 갱안에 배관을 계속 늘여야 하였다. 그런데 쇠배관이 부족한 조건에서 그보다 적은 품을 들여 해결할수 있는 비닐배관을 리용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던것이다. 이들은 비닐배관은 작업경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리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 갱안에서 발파를 할 때 튀여나는 돌에 의해 비닐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할수 있었다.

기성관념에서 벗어날수록 비약에로의 길은 더 넓게 열린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하나의 사실을 더 보자.

굴뚫기를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일군들은 버럭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광차에 의한 버럭처리를 기본으로 하였다. 공사구간이 늘어난 조건에서 계속 이런 방법대로 하자면 광차와 궤두가 더 많이 요구되였다. 이것을 보장하는 일이 간단치 않았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자동차에 의한 버럭처리방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것은 광차와 궤두를 적게 쓰면서 버럭처리속도를 훨씬 높일수 있는 방도였다. 그 실현을 위해 기존설비를 실정에 맞게 개조하여 버럭상차기도 준비하였다.

당의 부름에 보폭을 맞추어 작전은 혁신적으로, 실천은 창조적으로 할 때 반드시 기적을 안아올수 있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오늘도 대오의 기관차가 되여 앞길을 열어나가고있다.

앞선 단위의 영예를 지니기까지

자강도려단 강계시대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흙물길건설을 맡은 자강도려단 강계시대대의 공사량은 이전의 2배로 늘어났다. 적은 로력으로 수십㎝길이로 언땅을 까내면서 높은 목표를 수행하자면 대대가 말그대로 기적적인 힘을 발휘해야 하였다.

무거운 과업을 놓고 장명학대대정치지도원이 결심한것이 있었다. 전투전에 승리를 마련해야 한다는것이였다.

기적을 창조하는 힘이 전투의 어느 한순간에 우연히 발휘되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모든 대원들을 결사관철의 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킬 때 대대가 당의 뜻대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는 억센 힘을 지닐수 있다.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승리의 첫째가는 담보가 있다고 본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키는 사업을 앞세웠다.

새 학습장까지 대원들에게 마련해주면서 많은 품을 들이였다.

대원들의 자체학습과 함께 소대별분담식학습경연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이를 계기로 대원들은 올해 자신들이 어떤 투쟁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깊이 자각하였다.

일군들은 대원들의 이런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였다. 여기서 더욱 주목을 돌린 문제가 있었다. 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는것이였다. 소대별사회주의경쟁을 위한 항목들을 이런 원칙에서 정하였다. 그때 종전과 달리 공구관리와 관련한 항목을 더 포함시키였다. 적은 로력으로 방대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조건에서 공구관리문제를 소홀히 할수 없었다. 이 사업에서도 누구나 주인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쟁항목으로 선정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응당한 결실을 안아왔다.

흙물길건설전투가 시작된 어느날 일부 대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것을 안 일군들은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하지만 대원들은 전투장을 떠나지 않았다.

한몸을 초불처럼 태워서라도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려는 의지로 한덩어리가 된 이들은 육탄정신으로 하루과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하였다.

집단주의기풍으로 맡겨진 일에서 려단적으로 단연 앞장설뿐만아니라 다른 단위들도 적극 도와주어 사람들의 경탄의 눈길을 받고있는 이 대대의 강한 힘은 바로 전투전에 굳세게 다져졌기에 그 위력이 무진장한것이다.

계속혁신, 계속전진

평안남도려단에서

평안남도려단의 흙물길건설전투장에 결사관철의 기상이 힘있게 나래치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순간의 침체나 답보도 있을수 없다는 신념을 만장약한 이곳 일군들과 대원들의 투쟁은 날마다 결사전으로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올해 려단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다. 지난 시기에는 언제건설을 기본으로 몇개의 대상건설을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종전의 두배이상이나 되는 대상을 맡았다.

그중에서 흙물길건설은 려단이 이전에 해보지 못한것이였다. 설비조건도 원만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주윤명려단장과 리종군려단정치부장은 문제를 실무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흙물길은 반드시 열어야 한다. 이 흙물길을 따라 흘러간 물로 적신 땅에 황금이삭 물결칠 때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황금벌의 력사를 길이 빛내이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관철하는 길에서 순간도 지체할 권리가 없다.

온 려단이 이런 각오로 산악같이 일떠섰다.

건설자들의 의지를 시험하려는듯 사나운 청천강바람이 몰아치면서 순식간에 몸이 얼어들게 하였다.

땅은 강쇠로 내리쳐도 탕탕 튀어날 정도로 두텁게 얼어붙었다.

어려울수록 목표를 높이 세워야 전투력이 강해지고 일자리도 크게 난다.

이것을 희천전역에서부터 체험한 일군들은 악조건에서도 오히려 반년분의 공사를 두달동안에 해제낄 대담한 결심을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해 려단에서는 능력이 큰 굴착기를 자체로 해결하였다.

그런데 날씨가 춥다보니 언땅을 파제끼면 굴착기가 그만 가동을 멈추게 되었다.

필요한 부속품을 해결하자면 일정한 기일이 걸려야 하였다. 그러면 이 기간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자 대대들이 끓어번지였다.

절대로 그럴수 없다. 공사를 순간이라도 멈춘다면 당에 완공의 보고를 올리는 시각이 늦어진다. 그 영광의 시각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격 앞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면서 각 대대의 대원들이 굴착전투에 진입하였다.

전투장 곳곳에서 함마로 정대를 내려치는 소리가 찬 대기를 가르며 쩡쩡 울리였다.

언땅이 이들과 맞섰다.

함마가 깨지고 정대가 자주 부러졌다. 풍부히 준비했던 공구들이 점차 부족하게 되였다.

대원들은 부러진 정대를 불에 달구어 다시 벼려들었다. 짧은 정대를 리용하다보니 종전보다 구멍을 더 뚫어야 언땅을 까낼수 있었다. 그만큼 땀을 더 흘려야 하였지만 대원들은 《사회주의전진가》와 같이 씩씩한 노래로 힘과 용기를 북돋우면서 완강하게 전진하였다.

성천군대대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대대의 전투장에는 큰 흙더미가 나타났다.

언땅우에 또 언 흙더미, 그날로 다 까내기에는 너무도 아름찬것이였다.

그러나 대원들은 그 일을 다음날로 미루지 않았다.

육탄이 되여서라도 까부셔버릴 결사의 각오로 나선 이들은 불을 켜들고 밤늦도록 전투를 벌려 끝내 그날목표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불굴의 정신력으로 전진해간 대원들중에는 개천시대대의 한 녀대원도 있었다. 질통에 제일 큰 흙덩어리를 담아 운반하는 그를 두고 남대원들은 녀장수라고 웃음속에 정겹게 부르군 하였다.

자기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야 대오의 진군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한것이 어찌 그 녀대원뿐이랴.

회창군, 룡원광산대대를 비롯한 모든 대대의 일군들과 대원들이 물길을 빨리 열어갈수록 그만큼 완공의 날을 앞당기게 된다고 여기였기에 그 길을 멈춤없이 달리고 또 달리였다.

멈춰서지 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자!

일군들과 대원들의 불타는 심장에 간직된 이 신념을 추동력으로 하여 려단은 흙물길건설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군중문화예술활동에 힘을 넣어

순천시 리수복청년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예술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감동시키고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발동하여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그런것만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대중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는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순천시 리수복청년협동농장의 경험이 주목된다.

지난해 이 농장에서는 그 전해보다 훨씬 높은 알곡소출을 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받아들이고 영농작전과 지휘를 잘한데 중요한 비결이 있다. 이와 함께 시의 일군들이 일치하게 평가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군중문화예술활동의 덕이라는것이다.

농장에서는 지난해 농장원들로 예술소조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이 준비한 예술소조공연이 얼마나 감화력이 컸던지 시급기관 일군들에게는 물론 시안의 10여개 리들을 순회하면서까지 보여주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였다.

결코 시간이나 로력이 남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였다. 봄부터 가을까지 드바쁜 농장원들로 예술소조공연을 준비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농장일군들의 생각은 당면한 영농과제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지향시키고 그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서 예술의 힘만큼 위력한것이 있겠는가. 로전방송기재를 통한 화선식선동사업도 좋고 다른 단위에서 와서 진행하는 경제선동활동도 좋지만 우리 농장원들자신부터가 혁명적인 예술의 주인으로 되게 하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농장의 일군들은 리수복영웅의 고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종목들과 현시기 당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 정책적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한 여러 작품들로 예술소조공연을 준비하게 하였다.

문학예술은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다. 군중문화예술활동이 생활력을 나타내게 되는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기세가 더욱 앙양되기때문이다. 예술소조공연을 준비하는 나날은 그대로 농장원들이 자기 고향에 깃든 당의 령도업적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하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기어이 관철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게 한 계기로 되였다.

농장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에서 조직한 농악무경연에도 참가하여 단연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농장원들속에서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심과 함께 무슨 일에서나 항상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승벽심이 더욱 높아졌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그들이 펼쳐놓았던 노래판, 춤판이 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이어지게 되였다.

이들의 경험은 군중문화예술활동이야말로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또 하나의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얼마나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는가.

본사기자 리 건

새롭고 특색있는 산업미술도안창작사업 활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과업관철로 들끓는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명도안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창작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산업미술창작사업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이곳 창작가들은 새해에 들어와서만도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면서도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담은 350여점의 특색있고 다양한 산업미술도안들을 창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기여하게 될 경공업제품도안들이 창작되였다.

김치생산의 공업화, 과학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되는 겨절임무우, 무우장절임, 통나물물김치, 오이소박이김치, 흰큰봉버섯장절임, 어린이영양김치를 비롯한 각종 제품들의 상표도안들이 보다 새롭게 창작됨으로써 문화성이 잘 보장되였다.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감정을 섬세하게 형상한 여러가지 기능성화장품들의 포장도안들은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실현에 이바지하고있다.

평양시안의 유희장종업원들의 겨울철복장도안들과 체육인들의 각종 복장도안들이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도안들은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감이 살아나는 형태와 색갈로 하여 의상미술의 발전면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여러 단위들의 마크도안들과 글장식도안들에도 대상의 특성에 맞게 간결성과 집중성, 상징성이 훌륭히 구현되고 글씨체의 조형화, 예술화가 충분히 보장되여있다.

조선산업미술창작사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영한 명도안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창작해낼 불타는 열정안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헌신으로 빛나는 복무자들의 별

신의주시인민보안부 교통보안원들의 소행을 두고

얼마전 우리는 신의주시 평화지구탁아소 소장 조영순동무가 보내온 한장의 편지를 받아보았다.

편지의 구절마다에는 신의주시인민보안부 교통보안일군인 김영수동무와 교통보안원들이 지난 10여년동안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높이 받들고 신의주시 평화지구탁아소를 물심량면으로 도와주고있는 감동적인 사연들이 적혀있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하여 복무자들의 별은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하여 더욱 빛나게 된다는것을 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3월 어느날이였다.

신의주시 평화지구탁아소를 돌아보는 시인민보안부 교통보안일군인 김영수동무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한것은 지난 10여년동안 탁아소를 위해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는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자기들의 지성이 부족한것만 같이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좀시 잠을 이룰수 없었다.

(평화지구탁아소의 개건보수공사를 어떻게 도와줄수 없을가.)

이렇게 생각하던 그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탁아소를 개건보수할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다음날 당조직을 찾아간 그는 속생각을 털어놓았다. 당시 단위에서는 후방시설들을 개건하기 위한 공사를 한창 벌려놓고있었다.

당조직에서는 후대들을 위한 일에서는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고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려는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며칠후 시인민보안부의 정치일군은 김영수동무의 두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에서는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라고 우리의 어깨우에 별을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어떻게 하든지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것으로 복무자들의 별을 빛내입시다.》

김영수동무는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탁아소개건보수공사에 필요한 세멘트와 혼석, 목재 등 자재를 마련하느라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교통지휘대의 교통보안원들도 모두 떨쳐나섰다. 그들은 근무를 수행하는 바쁜 속에서도 자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였다.

자재문제가 해결되자 탁아소 일군들과 보육원들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일판을 벌리였다.

공사가 벌어지던 나날 김영수동무는 자주 탁아소에 찾아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주는 한편 교통보안원들과 함께 블로크와 기와도 찍고 벽체축조도 해주면서 탁아소개건보수공사에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그리하여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물놀이장 등이 일떠서고 수백㎡에 달하는 사무실청사지붕보수공사도 훌륭히 완공되였다.

그후에도 이곳 교통보안원들은 필요한 비품들과 놀이감, 갖가지 신선한 과일과 당과류를 보장해주었고 상수도망을 수리하는 기간에는 물보장대책까지 세워주었다.

아이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전변된 탁아소를 보면서 평화동의 일군들과 주민들은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이곳 교통보안원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후대들을 위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이들의 뜨거운 마음은 번듯하게 포장된 탁아소마당에도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지난해에 이곳 교통보안원들은 탁아소마당을 번듯하게 포장할것을 발기하고 피치포장공사를 통채로 맡아나섰다.

전철수, 리동진동무를 비롯한 교통보안원들은 굴착기와 삽차 등 설비들을 동원하여 탁아소마당포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끼였다.

하기에 이곳 탁아소소장 조영순동무는 편지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매일 아침 훌륭하게 꾸려진 탁아소에 들어설 때마다 시인민보안부 교통보안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민보안원들을 키워낸 어머니 우리 당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깊이 간직하였기에 이곳 교통보안원들은 신의주육아원과 신의주애육원, 신의주초등학원과 신의주중등학원을 건설할 때에도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시에서 살고있는 여러명의 전쟁로병들과 특류영예군인들의 생활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하기에 시안의 주민들은 이곳 교통보안원들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이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있다.

오늘도 이곳 교통보안원들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좌우명으로 삼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면서 복무의 나날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지식은 창조와 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다. 누구나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자

끊임없는 비약에로 떠미는 학습열풍

륙해운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을 만나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어느 부문, 어느 단위나 들끓고 있다.

과연 누구들이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며 보다 큰 성과들로 뜻깊은 올해를 빛빛이 총화하게 되겠는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얼마전에 륙해운성 일군들을 만났던 이야기로 대신한다.

지난해에 무역짐배 《자력》호의 성대한 출항식을 가지였으며 압록강의 새 풍치로 된 100t급뜬도크를 부어넣고 수백t급의 화물자동차수송선과 자동종합준설선을 건조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한 륙해운성에서는 올해에 또다시 방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구체적인 작전들을 펼치였다.

성에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펼친 일감들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였고 또 놀라게도 했다.

하지만 성당위원회일군은 성의 력량이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고 여유작작하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자기 사업의 능수가 되자면 실력이 있어야 하며 실력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학습입니다.》

성에서 새해벽두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곳이 있다. 전자도서실이다. 성일군들은 콤퓨터들이 즐비하게 갖추어진 이곳에 와서 새 과학기술자료들을 열심히 학습하고있었다.

처음 우리는 아마도 새해의 첫달이여서 한해사업을 설계하고 그 수행방도를 찾느라고 저마다 전자도서실을 찾는것이라고 제나름대로 짐작하였지만 사실은 그런것만이 아니였다.

부원 리천우동무는 전자도서실을 통하여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탐독하고 자기 사업에 적극 리용하는것은 성일군들의 체질화된 기풍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이 현실로 펼쳐진 우리 전자도서실은 일년내내 성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되고있습니다.》

전자도서실에 넘치는 학습열풍과 더불어 성의 많은 일군들이 시대가 바라고 혁명이 요구하는 실력가형의 화선지휘관대오에 당당히 들어서고있었다.

우리가 파일룡부상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매우 바쁘게 일하고있었다. 몇시간후에 있게 될 성협의회토의안건과 관련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한편 때없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 일군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즉시 대답을 주었으며 도간도간 콤퓨터를 들여다보다가 사업수첩에 무엇인가 부지런히 적어넣기도 하는것이였다.

그러는 그의 책상우에는 현대경제사전을 비롯한 두툼한 책들이 쌓여있었다.

학습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올바로 선 사람에게는 환경과 조건,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것처럼 그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알아야 할것, 배워야 할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바쁜 일의 짬을 내고 잠시간도 쪼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있었다.

그는 몇해전에 집합기중기조립과 관련한 론문을 훌륭히 완성하여 학위를 받은 일군이였다.

우리는 취재과정에 륙해운성에 박사학위를 소유한 일군들도 여러명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성책임일군부터 박사였는데 그는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보급기지들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이 나오는 족족 탐독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고있다는것이였다.

해박한 지식으로 새로운 작전들을 전망성있게 구상하고 설계해나가며 아래일군들의 사업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주는 책임일군의 사업방식이 정무원들에게 주는 영향은 자못 큰것이였다.

파일룡부상은 성에서는 누구라 할것없이 전자도서실에도 부지런히 드나들고 참고자료들과 도서들도 보면서 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한다고 말하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일군들에게는 휴식일이자 곧 학습일입니다.》라고 덧붙이는 말도 아주 인상적이였다.

우리는 또 한명의 박사인 백영호국장도 만나보았다. 그는 만족한 미소가 넘치는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반겨맞았다. 그가 류달리 기뻐하는데는 사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서 성이 주요대상공사를 맡았는데 국과 해운설계연구소에서는 그와 관련한 기술준비를 단 이틀동안에 전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던것이다.

백영호국장은 국성원들과 해운설계연구소 연구사들이 높피라는 노력으로 실력을 다지고다지며 당에서 준 과업을 최단기간내에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온 결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사무실의 한쪽 벽에는 전국적인 프로그람경연을 비롯하여 여러 과학기술경연과 전시회들에서 받은 우승기들이 걸려있었다.

우리는 학습열풍, 실력전의 된바람을 항만수상운수관리국의 사무실들에서도 후덥게 느낄수 있었다.

김용일국장의 방에서는 그와 오승원기사장이 올해 국이 해야 할 사업들을 놓고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진지한 토론중에 있었고 또 다른 방에서는 여러 정무원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일떠서게 되는 대상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열띤 론쟁을 벌리고있었다.

각자가 기초자료와 기술문헌들에 대한 연구를 깊이하고 새 기술방안을 세운데 기초하여 이렇게 마주앉아 토론하고 론쟁하는것이 실력을 높이고 현실에서 긴절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풀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누구라없이 말하였다.

우리는 새해벽두부터 륙해운성에 넘치는 열정적인 분위기를 보고 대하면서 이곳 일군들이 이룩하게 될 올해의 새로운 승리와 성과를 확신하게 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힘에 의하여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학습열풍, 실력전의 열풍이야말로 우리모두를 끊임없는 비약에로 힘차게 떠밀어주는 억센 힘이라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륙해운성 일군들을 만나보며 다시금 절감하였다.

본사기자 허명숙

모범독서가들

박식한 지배인

몇년전까지만 해도 거의 주저앉았던 김책건재공장이 생산토대를 그쯘히 갖추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 모든 성과는 지배인 방경원동무의 실력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방경원동무는 사회과학을 전공한 일군이다.

당의 크나큰 신임으로 김책건재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되였을 때 주저앉다싶이 한 공장을 놓고 망설인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아는것이 없으면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 세멘트공학과 관련한 도서들을 열심히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늘 바쁜 시간을 보내는 그에게 있어서 책읽을 시간이란 기껏해서 사업의 여가시간이나 밤시간이 전부였지만 그는 시간을 아껴가며 책을 읽었다.

이 과정에 그는 세멘트공학부문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할수 있었고 지방원료로 질좋은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는 방도도 내놓을수 있었다.

방경원동무는 말한다. 실력이 있어야 앞채를 멜수 있다고.

꾸준한 노력과 기수

평안북도정보통신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술준비원 계룡일동무를 가리켜 무서운 독학가, 불같은 열정가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평안북도정보통신국에 배치된 때로부터 지난 8년동안 계룡일동무는 손에서 책을 놓아본적이 없다.

지식의 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갱신주기가 빨라지고있는 오늘날 하루라도 학습을 게을리하면 발전하는 시대에 따라설수 없다는것이 그의 견해이다.

계룡일동무는 주별, 월별 독서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시간을 쪼개가며 열심히 책을 읽고있다. 그는 여러건의 창의고안도 내놓아 단위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평안북도정보통신국이 내놓은 《실시간동영상전송기술을 리용한 정보통신기계실 통합감시 및 조종체계》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것도 계룡일동무의 학습기풍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계룡일동무의 사업성과는 말해주고있다.

실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대오의 기수가 될수 있다.

《스승》은 곁에 있다

지난해말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 및 창의고안전시회에서는 자화식연유절약기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실 이 자화식연유절약기가 나온지는 오래되였지만 실천과정에 그 효률이 높지 못하여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었다.

자동차1직장 운전사 김은혁동무는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꾸준히 사색하고 탐구하여 끝끝내 자화식연유절약기의 효률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야말았다.

하다면 평범한 로동자가 창의고안명수로 될수 있은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기발한 착상은 저절로 떠오르는것이 아니다.

김은혁동무에게 풍부한 지식을 주고 탐구의 나래를 한껏 펼칠수 있게 한 귀중한 길동무는 바로 책이다. 자화식연유절약기의 성능을 개선할 때에도 그는 독서를 통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고 한다.

대학졸업생도 아닌 그가 이룩한 성과를 두고 사람들이 그 비결에 대해 물을 때마다 김은혁동무는 즐겨보군 하는 책을 손에 들어보이며 이렇게 대답하군 한다.

《학력이 문제입니까. 훌륭한 스승이 이렇게 늘 우리곁에 있지 않습니까.》

정영철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구나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새해진군길에 떨쳐나선 대안친선유리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에 대한 우리의 취재는 그들의 아침출근길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손에 책을 들고 공장정문으로 들어서는 종업원들의 저 모습을 보십시오. 이젠 누구나 시간을 아껴가며 책을 읽는것이 우리 공장의 기풍으로 되였답니다.》

공장의 한 일군이 독서기풍, 학습열풍이 하나의 풍조로 되였다며 은근히 자랑섞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온 공장이 새해 첫 전투로 들끓던 1월 어느날 전기자동화직장의 전투현장으로 공장당일군이 들어섰다. 늘 생산현장에서 종업원들과 어울려 새로 나온 당정책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새 과학기술소식도 알려주군 하는 당일군이였다. 그날도 기술서적을 비롯하여 새로 나온 도서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전기자동화직장 종업원들에게 공장당일군은 말하였다.

《아는것이 힘이요. 알아야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소.》

《우리들을 믿으십시오. 다시는 시간타발을 하지 않겠으니말입니다.》

직장장의 말에 전투장에는 웃음꽃이 피여났다.

그들모두에게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 되새겨졌던것이다.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으로 전민총돌격전의 첫 자욱을 떼은 그들이였다. 그러나 시일이 흐름에 따라 학습열의는 점차 식어갔다. 직장의 일부 종업원들속에서는 년간생산목표를 높이 세운데다가 그것을 앞당겨 끝내자면 학습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고 하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시간타발을 하던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일이 생겼다.

당시 공장에서는 수입해서 쓰던 아류산가스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그중 걸린 문제의 하나가 아류산가스보충가열기제작이였다.

공장참모부에서는 매일과 같이 토론이 진행되였다.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바로 이때 아류산가스보충가열기를 자체로 제작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다름아닌 전기자동화직장의 로동자들이였다.

직장장과 함께 설비제작에 나선 기능공들을 보는 순간 시간타발을 하던 사람들의 눈앞에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출근길이나 작업의 휴식시간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였다. 그들모두가 열성독학가들이였던것이다.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끝끝내 아류산가스보충가열기제작에 성공한 날 직장종업원들은 너도나도 마음속결의를 다지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배우고 또 배우자!)

전기자동화직장에서 타오른 독서기풍, 학습열풍은 온 공장에 타번졌다.

이 나날 종업원들은 우리 당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고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되여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요. 우리 함께 자자구구 학습하자구.》

지나간 일을 되새겨보는 로동자들에게 공장당일군이 하는 말이였다. …

일군은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젠 우리 종업원들이 너도나도 떨쳐나섰습니다. 모두가 실력가가 되자고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배움의 길에 어찌 졸업이 있을수 있으랴.

대안친선유리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드높은 독서기풍, 학습열풍이 그대로 비약의 열풍으로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그래서인지 맵짠 바람이 부는 겨울이였지만 전혀 추운줄 몰랐다.

본사기자 신철

대중의 친근한 학습방조자들

혜산시출판물보급소 일군들과 출판물보급원들

어디서나 그들을 기다렸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가며 더 많이 학습하고 더 많은 길을 걸어야 했다.

사람들이 친근한 학습방조자들이라고 정답게 부르는 그들은 혜산시출판물보급소의 출판물보급원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도 대중이 스스로 공감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론리정연하고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온 나라 인민들이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가슴설레이던 그때 혜산시출판물보급소의 어느 한 방에서는 출판물보급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있었다. 신년사를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는것과 함께 이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준비도 동시에 추진시켰다.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호소성과 감화력이 큰 그들의 신년사해설선전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일하며 배우고 생활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대로 지난 기간 이곳 출판물보급소의 일군들과 출판물보급원들은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지난해 8월 자체의 힘으로 절세위인들의 초상화와 영상작품들을 모실수 있는 방을 더 환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던 때였다.

가정부인로력으로 공사에 필요한 물동량을 손달구지로 운반해오고 미장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헐치 않았다.

그만큼 출판물보급원들의 육체적부담도 컸다. 하지만 이들은 도서선전을 위한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다. 손달구지로 물동량을 운반하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어느날 하루일을 마치고 밤늦도록 도서해설문을 만드는 출판물보급원들에게 소장 조현숙동무는 힘들지 않은가고 조용히 물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더 많은것을 알려주려면 많이 배워야겠는데 시간이 모자라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꼭 이동강의를 나온 교원들같답니다. 그런 때면 피로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막 힘이 솟습니다.》

출판물보급원들의 말을 들으며 조현숙동무는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우리 당사상전선을 굳건히 지켜갈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그들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된 삶의 지향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그들은 하나를 가르치자면 열백을 알아야 한다는 관점밑에 정열적으로 학습하고 도서해설기량을 련마하였다.

출판물보급원들이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진행한 도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과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에 대한 해설선전은 대중의 심장속에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새겨주었다. 그들의 해설선전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혜산시출판물보급소 출판물보급원들이 진행하는 도서해설을 듣고난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면서 여운이 남게 여러가지 형식을 배합하여 도서해설을 해주니 출판물보급원들이 언제면 다시 올가 하고 기다려지게 된다고 하면서 친근한 학습방조자들이라고 사랑과 정을 담아 불렀다.

그들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자기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을 통속적이면서도 구수하게 알려주는 그들을 누구나 존경하며 따른다.

오늘도 혜산시출판물보급소의 일군들과 출판물보급원들은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을 지켜선 긍지와 보람을 안고 자신들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조경철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신행위와 불량행위, 탐오, 뢰물행위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은 사회주의제도의 사상정신도덕적기초를 좀먹는 매우 유해로운 요소이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적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리용될수도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일대 혁명적인 공세를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지금 적들은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 목적은 우리 내부에 정치적불안정과 혼란을 조성하며 기본은 사람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데 있다.

언제인가 평양교예단(당시)의 연출가였던 김명연동무는 어느 한 출판물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느낀 소감을 글로 써서 발표하였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연회장입구에서 손풍금을 타며 모자를 벗어놓고 동냥을 하던 이전 민주도이췰란드(당시)의 이름있는 인민배우, 희귀한 동물들을 거리에 세워놓고 동냥하는 로므니아의 옛 동물교예배우, 돈이 없어 끼니도 에우지 못한채 무대에 올라야 했던 마쟈르에서 온 교예배우의 불우한 운명에 대하여 전하면서 그들은 예술계의 불행한 방랑아들이였다고 썼다. 그러면서 어느 한 나라 교예배우가 우리 교예배우들에게 한 말을 인용했다.

《한때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복귀되면 황금소나기가 쏟아지리라는 환상을 가졌었지요. 그러나 직접 당하고보니 사회주의 그때가 제일이였다는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실도 있다.

엘싸 플로레스라는 녀인은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로스안젤스로 간 이주민이다. 미국에 건너간 그는 이제부터 만사가 다 잘될것이라고 믿었다. 한푼두푼 모아 가져온 돈으로 자그마한 옷상점까지 차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상점은 부흥하는것이 아니라 파산의 갈림길에서 오락가락하였고 그에게 차례진것은 인종차별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강도행위로 인한 공포심이였다.

1992년에 와서 그 녀인의 환상은 산산이 깨여져나갔다.

당시 로스안젤스에서는 흑인청년에게 폭행을 가한 백인경관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폭동이 일어났고 폭동과정에 그의 상점은 완전히 불타버렸던것이다. 그는 모든것을 잃고 알거지가 되여 빈민굴에서 헤매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의 교예배우들이나 엘싸 플로레스라는 녀인은 결국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때문에 비참한 운명에 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고귀한 피와 땀으로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하고 붉은기를 내리우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은 그 나라 인민들이 투철한 혁명의식, 계급의식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있었기때문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원쑤들에 대한 투항이고 변절이다. 사람들속에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만연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의 후과이다.

적들은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것과 함께 허황한 미신과 부르죠아사상문화,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킨다.

21세기초 어느 한 나라의 광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집단분신자살을 하는 몸서리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조작연출한자들은 종교의 탈을 쓴 사교조직의 성원들이였다. 이자들은 세계가 《끝장날 날이 림박》하였으며 《곧 소멸될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조직만이 인류를 구원할수 있다는 허황한 리론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며 일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와 자연과 사회현상에 대한 무식과 몽매, 일부 부정적현상에 대한 불만을 악용하여 《신체단련》의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을 끌어당기였다. 정치적식견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이 놈들의 꾀임에 넘어갔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허황한 교리에 미쳐 수련을 하다가 정신착란에 걸려 목숨까지 잃게 되였다.

후에 판명된데 의하면 사교조직의 성원이라는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을 받는 불순세력들이 만들어낸 반정부조직에 가담한자들이였다. 집단분신자살참극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의 결과였다.

지난날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다. 지금 적들은 《1US$의 대외선전비용은 5US$의 국방비용과 맞먹는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제놈들의 강도적요구에 호락호락 응하지 않고 반제자주의 길,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피의 교훈은 무엇인가.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들에 반동적인 출판물들과 색정적이고 무례한 영화, 음악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적들의 끈질긴 책동에 의하여 사람들속에서 사상적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은자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건달을 부리면서 자본주의를 동경하게 되였다. 사회에서 점차 이런자들이 머리를 쳐들게 되고 그 대렬이 늘어났다.

극단한 개인주의에 물젖은 이런자들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있었겠는가. 결국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배신자들,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 혁명의 붉은기를 내리우고 짓밟는 비극이 빚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의 침습은 사람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그들의 머리속에 지배하게 하였으며 결국 시장경제와 사유화에로 넘어가면 《서방나라들이 적극 도와줄것》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을 가지게 하였던것이다.

력사와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 그것은 사회주의사상의 변질을 가져오고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의 와해로, 죽음으로 이어진다는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일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오늘도 개성시 월정리의 어느 한 마을에 가면 왜놈들이 산허리를 두동강낸 자리가 뚜렷하게 남아있다. 리의 또 다른 마을 뒤산에는 10여m에 가까운 거대한 바위돌이 산중턱에 놓여있다.

오래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증언자료에 의하면 왜놈들이 산의 정기를 눌러놓음으로써 조선에 장수가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런짓을 하였다는것이다. 월정리 과수밭으로 되여있는 산등성이의 여러군데에도 그러한 큰 바위들이 있다. 고대시기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을 련상케 하는 그 돌들은 지난 조선강점시기 왜놈들이 산의 맥을 끊어놓기 위해 먼곳에서부터 날라왔다고 한다.

이 얼마나 간악하고 악독한가.

우리 나라의 말과 글을 빼앗다 못해 조선민족의 넋마저 말살하려고 미쳐날뛴 천년숙적 일제.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강산도 변하고 일제놈들의 만행을 목격한 사람들도 이제는 그 마을들에 없다.

하지만 오늘도 이곳 사람들은 고향땅에 서린 원한을 잊지 않고있다. 대를 이어가며 일제놈들의 죄행을 들려주며 후대들의 가슴속에 원쑤일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새겨주고있다.

오늘도 력사의 증거물들은 절규하고있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라고.

본사기자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로 가슴끓이고있다.
—함경북도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조선반도정세를 확고히 주도하시는 천출위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의지, 평화수호의 대용단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 통일을 지향하는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된데 대하여 국제사회가 감탄하고있다.

스위스신문 《노이에 쮸리히 짜이퉁》은 조선반도에서의 현 정세추이는 전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시였다는 내용의 론평을 실었다.

프랑스언론들에는 현 북남관계문제와 관련하여 벌어진 소리를 하는 미국을 질책하며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보란듯이 미국을 봉쇄하고 조선반도에 긴장완화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 전략카이시라고 단복하는 조선문제전문가들의 평이 실려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 등 언론들에는 조선반도에서의 정세완화의 눈석이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신년사에서 주동적으로 제시하신 방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것이다, 최근 정세흐름의 모든것이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반도정세를 주도하는 진정한 승자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이시다는 내용의 글들이 실려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카나다신문 《토론토 스타》는 조선이 현재의 정세를 주도하고 미국은 그에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이 지금 우리가 보고있는 모든 사변들을 주도하고있다. 지금 세계가 한가지 크게 놓치고있는것은 수십년간에 걸친 대결에서 조선이 승리하고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조선이 하자는대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조선은 작지만 군사강국이며 정세흐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게 되여있다.》

미국의 전직 교위관리들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들이 련속 울려나오고있다.

전 백악관 상급보좌관 볼래넌은 언론에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있다고 분석한 기사를 내면서 지난해는 조선의 최고령도자와 관련된 가장 인상깊은 한해였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승리하시였다고 피력하였다.

부쉬행정부시기 미국무장관이였던 라이스까지도 CNN방송을 통하여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실제적으로 매우 현명한분이시다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였다.

오늘의 조선반도정세흐름을 통하여 국제사회는 세계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에 더욱 매혹되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남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고약한 망동

지금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못되게 놀아대는자들이 있다. 바다건너의 일본반동들이다.

일본외상 고노와 내각관방장관 스가, 방위상 오노데라를 비롯한 아베패당은 저저마다 나서서 《대화를 위한 대화》로 되어서는 안된다느니, 미국과의 련대밑에 《최대의 압박》을 가해 《북조선의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기존정책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느니 하고 악청을 돋구고있다. 더우기나구니없는것은 아베가 엄마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행각하면서 《북조선은 유럽전체를 위협》하고있다는 황당무계한 나발을 불어대고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강화를 청탁하며 부산을 피운것이다. 그야말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가로막으려는 실로 고약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들에 의해 북남사이의 대화의 문이 열리고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다. 조선반도의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국제사회는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있으며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일본당국자들만은 이것을 몹시 배아파하면서 체방을 놓지 못해 몸살을 앓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남의 대사를 놓고 잘망스럽게 《대화를 위한 대화》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악담질하고 기존정책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훈시질을 한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고 그에 찬사코 제동을 걸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바로 여기에서 조선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는것을 경계하면서 우리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그를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미쳐날뛰는 섬나라 족속들의 체질적인 악습과 파렴치한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북과 남의 대립을 부추기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것은 골수에 배긴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주되는 수법으로 되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과거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치떨리는 죄악에 대해 성근히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북위협》이라는것을 내들고 군국주의부활로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상징인 야스구니신사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참배하는 놀음을 벌리고 《방위백서》와 교과서들에 독도를 저들의 령토라고 뻐젓이 명기하면서 력사외곡에 열을 올리고있는 사실은 이자들의 재침책동이 엄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어 아베패당은 헌법개정으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미국의 부추김밑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마뜨리려고 분별없이 헤덤비고있다.

제침략에 들뜬 일본반동들에게 모처럼 나타난 북남화해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리 만무하다. 북남관계가 화해와 통일에로 나가게 되면 그 누구의 《도발》을 구실로 저들이 추구하는 해외팽창야망이 물거품이 된다고 라산하고있는 아베패당은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발광하고있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은 국내에서 저들이 처한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출로를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데서 찾고있다. 이번에 아베가 멀고먼 유럽나라들까지 찾아다니며 잠꼬대같은 《북조선위협》나발을 불어댄것은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국내정치에 악용하는데 맛을 들인자들의 교활한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남을 걸고들며 제 리속을 채우려는 일본반동들의 못된 버릇은 갈데 없다.

우리 나라 속담에 재미난 물에 범난다는 말이 있다.

일본은 남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려고 고약하게 놀아댈수록 저들이 과거에 저지른 만고죄악에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이 덧쌓여지고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만 더욱 폭발시킬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계개선에 갖은 훼방을 놓으며 발악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할것이다.

박 철 준

평화파괴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나갈것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있다. 미국 본토에서 출항한 핵항공모함 《칼빈손》호 타격단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개막식 전야에 조선반도수역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일본에 있는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의 조선반도전개를 공표한데 이어 핵항공모함 《스테니스》호도 곧 시태평양수역으로 출발한다고 떠들고있다. 소형항공모함으로 알려진 미해군강습상륙함 《와스프》호를 비롯한 3개의 상륙작승기모함단이 숨한 해병대부리를 싣고 기어들 차비를 하고있다. 《B-1B》, 《B-2》핵전략폭격기편대가 전개되어있는 괌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본토에서 《B-52》핵전략폭격기편대가 날아들었다.

미국방성은 《데로방지》의 구실밑에 특수부대파견도 계획하고있다. 미군은 2월중에 2차례의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하려 하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의 알길에 차단봉을 내리우고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핵전쟁발발 계선에로 몰아가려는 미국의 흉심의 발로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이 《데로방지》, 《안전유지》를 위한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지만 그것은 한갓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름철과 겨울철에 수많은 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였지만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 특수부대들이 총출동한 속에서 치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다.

영국신문 《데일리 스타》는 미국이 조선의 문앞에까지 핵항공모함들을 파견함으로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긴장위험을 산생시키고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은 말로는 북남대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이면서 북남관계개선에 훼방을 놓아보려고 책동하고있다. 미국회에서는 북남회담과 조선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가 미국이 군사력강화와 무력증강에 떼여달리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는 삐뚤어진 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의 한 잡지는 《조선반도에서 평화전망이 보이고있는데 대해 전쟁떼파들이 정체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잡지는 북남대화의 힘동력은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신년사로부터 나온것이다, 미국은 북남회담시작부터 범을 만난 노루마냥 놀라고있다, 국무성 대변인은 남조선이 미국의 방향에 어긋나게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압박하였다,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 브룩스는 조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고 훈계하였다, 전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라첼은 남조선이 미국을 등에 업지 않으면 조선과의 관계를 멀리 전전시킬수 없으며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경우 통명내에서 긴장을 야기시킬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하였다.

미국이 북남관계개선기운을 말살해버릴 불순한 기도밑에 조선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투적인 수법에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비교적 명백히 폭로한 기사라고 볼수 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으려는것이 미국의 본심이다. 미국의 고약한 악습에 대해 더이상 렐거할 필요가 없다.

스쳐지나보낼수 없는것은 미국의 도발적인 무력증강책동이 임의의 시각에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하여 모험적인 군사행동을 강행하려는 위험천만한 흉계를 내portion하고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 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관리들속에서 조선을 폭격할 때가 되였다는 소리들이 왕성해지고있다고 핵시설들에 제한적인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문제를 은밀히 토의하고있다는 기사들을 싣고있다.

미국의 한 재단의 회장은 조선과의 그 어떤 회담도 반대하는 미국판리들이 외교적노력을 가능한껏 파괴시키기 위해 이러한 기사들을 내는것 같다고 야유하였다. 하지만 문제를 그렇게만 볼것도 아니다.

지난해말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에 혼겁한 미국은 이제는 조선을 지지시킬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떠들며 강력한 군사적대응책마련에 고심해왔다. 미치광이 트럼프가 《북조선은 유럽전체를 위협》하고있다는 황당무계한 나발을 불어대고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강화를 청탁하며 부산을 피운것이다. 그야말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가로막으려는 실로 고약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있다.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들에 의해 북남사이의 대화의 문이 열리고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다. 조선반도의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국제사회는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있으며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일본당국자들만은 이것을 몹시 배아파하면서 체방을 놓지 못해 몸살을 앓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남의 대사를 놓고 잘망스럽게 《대화를 위한 대화》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악담질하고 기존정책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훈시질을 한것은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고 그에 찬사코 제동을 걸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바로 여기에서 조선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는것을 경계하면서 우리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그를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미쳐날뛰는 섬나라 족속들의 체질적인 악습과 파렴치한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북과 남의 대립을 부추기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것은 골수에 배긴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주되는 수법으로 되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과거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치떨리는 죄악에 대해 성근히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북위협》이라는것을 내들고 군국주의부활로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상징인 야스구니신사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참배하는 놀음을 벌리고 《방위백서》와 교과서들에 독도를 저들의 령토라고 뻐젓이 명기하면서 력사외곡에 열을 올리고있는 사실은 이자들의 재침책동이 엄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어 아베패당은 헌법개정으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미국의 부추김밑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마뜨리려고 분별없이 헤덤비고있다.

제침략에 들뜬 일본반동들에게 모처럼 나타난 북남화해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리 만무하다. 북남관계가 화해와 통일에로 나가게 되면 그 누구의 《도발》을 구실로 저들이 추구하는 해외팽창야망이 물거품이 된다고 라산하고있는 아베패당은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발광하고있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은 국내에서 저들이 처한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출로를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데서 찾고있다. 이번에 아베가 멀고먼 유럽나라들까지 찾아다니며 잠꼬대같은 《북조선위협》나발을 불어댄것은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국내정치에 악용하는데 맛을 들인자들의 교활한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남을 걸고들며 제 리속을 채우려는 일본반동들의 못된 버릇은 갈데 없다.

우리 나라 속담에 재미난 물에 범난다는 말이 있다.

일본은 남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려고 고약하게 놀아댈수록 저들이 과거에 저지른 만고죄악에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이 덧쌓여지고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만 더욱 폭발시킬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계개선에 갖은 훼방을 놓으며 발악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할것이다.

박 철 준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라!》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 항의투쟁 전개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올해 첫 금요행동이 19일 일본문부과학성앞에서 진행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올해는 재일동포들이 일본당국의 민족교육말살책동에 맞서싸운 4.24교육투쟁이 벌어진 때로부터 70년이 된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있는것은 잘못된 70년전의 력사를 되풀이하고있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남조선, 일본인사들도 함세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앞으로도 계속 금요행동을 힘차게 전개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투쟁이 장기화되고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힘을 합쳐 조선학교지원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싸워 기어이 승리를 쟁취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라!》, 《문부과학성은 모든 아이들의 배우는 권리를 보증하라!》등의 구호를 힘차게 웨쳤다.

남조선신문 보수야당들의 통합놀음 비난

22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패거리들의 통합놀음을 단죄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국민의 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안철수와 더는 정치를 함께 할수 없다고 말하고있다고 전하였다.

전당대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합당을 선언한 안철수와 류승민에게 반대파의원들이 항의를 들이대고있다고 글은 밝혔다.

글은 《국민의 당》과 시불러 통합을 선언한 《바른정당》내에서 의원들이 련이어 탈당하여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것은 바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본질상 차이가 없는 수구정당이기때문이라고 폭로하였다.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야합과 《바른정당》내 의원들의 《자유한국당》복당은 수구보수세력집결과 량당체계에로의 재편의 신호탄이라고 글은 단죄하였다.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패거리들의 통합신당은 주요정책의 기본방향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쟁억제, 북핵문제해결》, 《자유롭고 공고한 시장경제발전》으로 발표하여 친미사대주의, 신자유주의정당으로서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고 글은 규탄하였다.

글은 《자유한국당》과 다를바 없는 통합신당이 《자유한국당》에 흡수되여 수구보수세력의 결합과 야합이 이루어질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병에 걸린 환자》로 불리우는 안철수가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수구보수세력집결의 앞잡이노릇을 하며 반통일적본색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고 글은 성토하였다.

글은 친미사대매국적이고 반통일적인 안철수는 민심과 력사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룡산참사의 피해자들 진상규명과 살인책임자처벌을 요구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희망박과쏘당에 의해 룡산참사가 빚어진지 9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룡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희생자유가족들이 20일 추모모임을 가지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살인책임자처벌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룡산철거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룡산참사는 보수《정권》이 재벌과 결탁하여 감행한 폭력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시민단체 량심수석방과 적폐청산을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18일 서울의 함풍공원에서 량심수석방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1154차 목요집회를 진행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량심수 석방하고 보안법 철폐하라》라고 쓴 프랑카드와 감옥에 갇혀있는 량심수들의 사진들을 들고있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새해에 들어와서도 당국이 량심수들을 석방하지 않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기회탈북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북의 녀성공민들과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할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원을 해체하며 리명박역도를 구속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정치적잔명을 부지해보려는 가련한 몸부림

최근 《국민의 당》내에서 《바른정당》파의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서 그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비난이 고조되고있다.

《국민의 당》이 얼마전 《바른정당》파의 통합과 관련한 전당원투표놀음을 벌리고 이로 하여 통합파와 반대파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통합을 통해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고 잔명을 부지할것을 꾀하는 《국민의 당》의 안철수패들과 이자들과 공모결탁하여 파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바른정당》것들은 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알뒤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놀아대고있다.

《국민의 당》의 통합반대파들은 얼마전 안철수의 진퇴와 독단을 막고 통합을 저지시키기 위한 방도에 대해 론의하기 위해 비공개회의를 진행하였다. 안철수패거리들은 이 회의에 한 인물을 파견하여 회의과정을 몰래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자가 도중에 덤미를 잡히자 통합반대파들은 격분을 터치였다. 그들은 통합파들이 법려놓은 이 너절한 놀음과 관련하여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안철수가 공식적으로 사과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안철수를 비롯한 통합파들은 제볼장은 다 보았다는 식으로 반대파들의 요구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바른정당》파의 통합과 관련한 전당대회날자를 결정하기 위한 당무위원회라는것을 소집하였다.

그로 하여 통합반대파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게 되였다. 당무위원회장에 몰려온 통합반대파들은 문을 열라고 하면서 회의장입구를 막아나서는 통합파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리였다. 그러나 반대파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철수패거리들은 당무위원회에서 다음달 4일 《바른정당》파의 통합을 최종토의하는 전당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안철수패거리들의 오만한 처사는 반대파들의 반발을 더욱 고조시켰다. 통합반대파들은 안철수가 보수대야합을 추진하기 위한 전당대회날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면서 그의 전횡과 독단으로 《국민의 당》은 이미 만신창이 되였다, 이것이 안철수가 말하는 《새 정치》인가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들은 안철수의 《새 정치》를 썩은 정치로, 그가 추진하는 전당대회를 불법적인것으로 락인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안철수는 지난 18일 《바른정당》대표 류승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 무슨 《희망의 미래》니, 《구태정치와의 전쟁》이니 하는 기만적인 간판을 내걸고 《통합개혁신당》을 내온다는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통합반대파측은 즉각 그에 대한 비난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안철수와 류승민의 통합선언은 《절차적정당성이 없는 희망없는 지루한 말잔치》, 《보수대야합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이제는 결별을 선언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분노가 최절정에 달한 《국민의 당》의 통합반대파들은 시급히 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철수와 갈라서 새로운 정당을 내오겠다고 하면서 그 준비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한편 《바른정당》내에서도 《국민의 당》파의 통합을 반대하는 기운이 나타나고있다. 이미 전부터 《국민의 당》파의 통합을 반대해오던 《바른정당》의 일부 세력은 류승민이 벌리고있는 통합놀음에 끼여들지 않겠다는것을 선언하였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 당》안에서는 《바른정당》파의 통합을 강행하면 《국회》 의석수가 줄어들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빨리 《통합베스》를 멈춰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그러나 《바른정당》파의 통합으로 살구멍을 얻려고 피하고있는 안철수는 당내의 반대여론에 귀를 틀어막고 어떻게 하나 《바른정당》파의 통합을 실현시키려고 발광하고있다.

지금 안철수패거리들은 당내의 중립파인물들을 저들에게 끌어당겨 통합지지세력을 확대하려 하는가 하면 저들은 의석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바른정당》파의 통합놀음을 한사코 정당화해나서고있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잔명을 부지하고 권력야욕을 실현하는데만 피눈이 되여 날뛰는 안철수패들의 너절하고 가련한 몸부림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는 환멸을 금치 못하고있다.

더러운 정치간상배들이 남조선민심의 증오와 배척을 받고 파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것은 필연적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로동자들과 함께 투쟁할것을 다짐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중당이 22일 당사에서 《최저임금119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결성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청년로동자들이 업주측의 얇은수에 넘어가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있다고 하면서 청년들과 비정규직로동자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그들의 편에서 투쟁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곧 녀성들의 임금이였고 해고와 임금삭감, 차별 등은 모두 녀성들이 먼저 그 대상이 되였다고 그들은 까밝혔다.

그들은 운동본부의 활동으로 녀성들이 일터의 떳떳한 주인으로 나설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80여개 나라를 휩쓰는 젖제품회수소동

최근 프랑스의 어느 한 회사에서 출하된 젖먹이어린이용우유에 살모넬라균이 섞어들어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 회사는 수출대상국들에서 제품들을 회수하고있지만 국내에서조차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고있는 상태이다.

살모넬라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배아픔, 게우기, 설사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며 한주일정도 앓는다고 한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80여개 나라들에 수출된 젖제품이 면역력이 약한 젖먹이어린이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것으로 보고있다.

하다면 이번 사고를 한개 생산업체의 실수로 보아야 하겠는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우에 금전적리익을 올려놓는 자본주의사회가 낳은 고질적인 병폐이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식품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에 오염된 닭알회수소동이 유럽을 휩쓴것도 불과 몇달전의 일이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를 없애는데 쓰이는 살충제이다. 간과 갑상선, 콩팥을 손상시키는것으로 하여 식용동물사육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여있는 살충제를 돈에 환장한 업체들이 거리낌없이 사용하였던것이다.

황금만능,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식품사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

사실은 자본주의사회의 고질적병집부터 뜯어내지 않으면 식품사고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을 법대로 막을수 없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박 예 경

주일미군 침략전쟁연습에 광분

지난해에는 이곳에서 미군이 9차례의 훈련을 벌려 현지당국과 인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새해에 들어와서는 우루마시의 이케이섬에서 미군직승기가 긴급착륙하는 사고까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주일미군의 훈련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항의기운이 더욱 거세질것으로 분석가들은 평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색갈혁명》의 화살은 누구를 겨냥하고있는가

얼마전 이란의 파르스통신이 미국이 감행하는 정부전복음모의 내막을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 미국대통령 레간의 집권시기 재무성 차관보였던 폴 로버트카 웨브차이트에 《반정부폭력시위는 정권교체를 위한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며 《이란에서 소요를 통한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다음번 목표는 로씨야와 중국》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미국이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의 정권교체를 위해 반정부폭력시위를 조작하고 배후조종해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온두라스,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리아 등 나라들에서 벌어진 반정부폭력시위들이 그 실례로 된다.

이란에도 그러한 쓰라린 력사가 기록되여있다.

1953년 미국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된 모싸데그가 유태인이며 공산주의자라는 소문을 계획적으로 퍼뜨려 이 나라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모싸데그정부를 반대하는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친미분자인 파흐라비를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히였다. 그후 20여년동안 미국은 파흐라비정권을 조종하였고 이란에 비밀경찰까지 조직해주어 독재정치에 항거해나서는 많은 이란인들을 학살하게 하였으며 방대한 량의 원유를 략탈하였다.

모싸데그정부를 비법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린데 대해서는 미중앙정보국도 인정하였다.

이란을 노린 미국의 책동은 그것으로 그쳐진것이 아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미국은 2009년에도 전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를 축출하기 위한 《녹색혁명》(《색갈혁명》의 한가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지난해 12월말 미국은 이란 전국의 지방도시들에서 반정부시위를 배후조작하였다. 《녹색혁명》의 재현이라고 할수 있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카메네이는 항의시위가 벌어졌던 한 지방도시를 방문하여 이번 시위가 미국이 수개월동안 준비한 음모책동의 결과였다고 까밝히는 연설을 하였다. 수리아외무성 무상은 미국이 수리아에서 저들의 음모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자 싸움터를 이란으로 옮겼다고 비난하였다. 이란의 주권은 존중되여야 하며 이 나라의 내정이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인들이 부패를 일삼고 나라의 재부를 《데로지원》에 랑비하는 정부에 대해 진저리를 치고있다느니, 오래동안 《억압》받은 국민들이 《독재자》들을 반대하여 떨쳐나선것이라느니 하는 여론을 내돌리며 이란정부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정부시위를 이란의 《부패한 인권상황》에 걸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소집을 요구하였다. 목적은 이란에 대한 내정간섭의 명분을 얻고 국제적압박으로 이 나라의 합법적정부를 뒤집어엎자는데 있다.

미국의 알은수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여러 나라들이 이란에서 《색갈혁명》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책동에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로씨야외무성 무상은 미국이 이란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말것을 경고하였으며 중국과 뒤르끼예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반대해나섰다.

폴 로버트는 로씨야와 중국은 이란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으로 간주하고있다, 즉 로씨야와 중국은 미국이 이란에서 불안정을 조성하고 정부를 전복하는데 성공한다면 다음번 목표는 자기들이 될것이라는것을 인식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상대가 누구이든 저들의 목적실현에 저촉된다면 사정없이 물어뜯는것이 포악한 승냥이 미국의 본성이다.

전문가들은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세계의 곳곳에서 반정부폭력시위를 조작하고 그를 구실로 내정간섭을 일삼으려는 미국의 책동에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손 소 연

ㄱ-81014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물송등록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